

동화는 과연 아름다운 이야기였을까?

최원석 | 과학칼럼니스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 동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델과 그레텔 등 동화 속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동화의 원전을 읽어 보면, 과연 이것을 아이들에게 읽혀도 좋은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잔인한 내용도 많다. 이러한 동화가 오늘날 아름다운 내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각인된 데에는 그림 형제와 월트 디즈니의 역할이 컸다. 그렇다면 과연 동화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동화(童話, fairy tale)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이지만 동화의 원전이 반드시 아이들이 읽기에 적당한 내용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즉 오늘날 발표되는 창작동화와 달리 과거의 창작동화나 전래동화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동화책인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이를 간단히 <그림 동화>라고 부른다.)가 그러했다. 이는 그림 형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독일 민족의 민담을 모아 놓았을 뿐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812년 발간된 <그림 동화>의 초판본에는 그림도 없고, 각주가 달려있는 독일 민담에 관한 학술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로 판을 거듭하면서 그림을 첨가하고 잔혹하고 선정적인 묘사를 삭제하면서 1857년 최종판인 7판이 나올 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와 비슷해진 것이다. 민담집은 원래 잔혹하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림 동화>의 초판본을 두고 한 때 <그림 동화>가 '알고 보면' 또는 '끔찍한', '잔인한' 동화라고 다소 과장되게 알려지기도 했

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 형제가 아이들이 읽기에 적당하도록 초판본에 등장했던 카니발리즘(cannibalism)이나 잔혹한 처벌, 성적인 표현 등을 많이 삭제하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현이 상당부분 그대로 동화책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백설공주>에는 계모인 왕비가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고 그녀의 간과 허파를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는 대목이 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멧돼지의 간과 허파를 왕비에게 바치고, 왕비는 이를 백설공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리를 해서 먹는다. 이것이 동물의 것이기는 했지만 왕비는 실제로 백설공주를 요리해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카니발리즘은 당시에 사람의 심장이나 간, 허파 등을 먹으면 그 사람의 힘을 얻게 된다고 여겼던 고대의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동화 속에 사람을 잡아먹



는 이야기가 흔히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그림 형제가 이 동화를 쓸 당시에는 사형수의 장기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었고, 피를 마셔 병이나 힘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었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동화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영화 <슈렉>에는 동화 속의 외모이상주의에 대한 풍자가 등장할 만큼 동화 속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미녀들이다. 백설공주나 엄자공주, 숲 속의 잠자는 공주와 같은 공주들뿐만 아니라 신데렐라나 라퐁젤과 같이 동화 속의 여자 주인공은 대부분 아름답고 가냘픈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왕자의 선택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러한 동화 속의 스테레오타입은 아이들에게 수동적이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미녀들이 왕자들과 영웅들에게 더 많이 선택되었기에 이것이 동화 속에 등장한 것이다.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들조차 매력적인 얼굴을 더 선호하며 자연에 있는 많은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택적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미인을 선택하는 경향은 동화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유전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즉 자연에서는 아름다움이 곧 건강하다는 유전적 신호인 것이다.

마녀는 동화 속에 고정 출연하다시피 하여 항상 악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화 책 속에 나오는 마녀의 모습을 사마귀가 난 매부리코에 망토를 한 늙은 노파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큘라의 전형적 모습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이 마녀의 모습도 디즈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화 속에 등장하는 마녀들이 실존했을까? 물론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마녀는 존재한다. 단지 마녀들이 마법을 부리거나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지 못

할 뿐이다. 실제로 마녀들은 자신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고 믿었는데, 이는 빗자루에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비행연고를 바르고 빗자루를 탔기 때문이다. 또한 마녀들의 모습에 늙은 노파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마녀사냥이 일어났을 때 혼자 사는 늙은 노파들이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는 일이 많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백설공주에 마법의 거울 나오는 것도 고대에 무당들이 거울로 점을 친 것에서 기원한다. 흑요석이나 청동으로 만든 초기의 거울은 연마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무당이 원하는 대로 점괘를 해석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동화는 분명 그 자체로 우수한 문학작품이다. 동화는 전래 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문화적인 유산이 녹아들어 후세의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자아를 눈뜨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화는 아이들에게 현실에 대한 안전한 대리 경험을 맛보게 해 아이가 건전한 심성을 가지게 하는 역할도 한다. 동화가 이러한 인류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동서양 막론하고 비슷한 동화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동화책을 읽혀도 좋을까? 물론 상관없다. 동화는 원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기에 아이들의 동화책이 왜 그렇게 잔인한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TTA

